

성남 백배즐기기

성남시계 산행

신촌동에서 말뚝 고개를 따라 인능산으로...

입동을 즈음해 몇 차례의 가을비가 내린 후 기온차가 심해지면서 건강을 더욱 염려하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산행의 즐거움과 건강을 찾아 한 번 더 길을 나서는 것은 어떨까?

성남시계 등산로를 따라 신촌동의 인능산과 옛골 방향으로 떠나보자.

수백 년 된 소나무 군락지

수정구 신촌동 산 6-1번지. 신촌동 버스정거장 뒤 주택가에 면한 좁은 산길을 오르면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300~400년을 넘겼다는 소나무 30여 그루를 볼 수 있다. 이 소나무들은 이근춘(62·신촌동) 씨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보호하는 것으로 주변의 다른 나무들과 숲을 이루며 등산객들에게 좋은 산책길을 제공하고 있다.

이근춘 씨는 “우리 땅에서 자란 소나무를 보호하고 그 어린 묘목을 이식해 외래종 유입을 막고 있으니 성남 시 유일의 명품 소나무지요”라며 우리 소나무를 지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인능산을 오르는 길목의 고개는 예전에 ‘말뚝 고개’라고 했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성남시계 등산로



전쟁으로 말이 많이 죽자 그 무덤을 만들어 말의 넋을 기렸다고 전해진다.

전망대에선 서울이 한눈에

소나무 산책길을 지나 나무계단으로 시작된 등산길에는 홀로 씨가 내려 묘목으로 자란 듯한 상수리, 개암나무 묘목도 보인다. 아기가 자기한 산길은 돌부리 하나 없다.

여동능선에 들어서자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숲 풍경은 남한산성과 비슷하나 훨씬 오붓하고 정감 있다. 10여 분쯤 걸으니 전망대에 도착.

전망대(265.8m)에서는 양재동 AT센터와 강남역, 남산타워, 그리고 63빌딩도 보인다고 한다. 인능산 정상까지 오르는 길 왼쪽으로는 비행장이, 오른쪽으로는 ‘샘마을 고개’를 지나 양재역 방향의 서울이 보인다.

뒷동산처럼 부담 없는 코스의 인능산

인능산(326m) 정상까지 출발 1시간 35분 만에 도착.

이곳에서 산행을 더 원하는 사람은 청계산으로, 피곤하다면 고등동 등으로 코스를 정하면 된다. 인능산 정상까지 오른 기자는 신촌동 주민센터로 하산했다.

내려오는 길은 낙엽이 쌓여 있어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낙엽 밟는 소리가 경쾌해 하산하는 내내 가을 단풍을 맘껏 밟을 수 있었다. 바위가 거의 없는 인능산은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오르기에 부담 없는 산이다. 뒷동산에서 친구들과 한바탕 놀고 내려온 기분으로, 키 작은 나무들의 산책길을 따라 내려오니 어느덧 신촌동 주민센터가 (깊은골) 나온다.

소나무 군락지에서 출발한 산행은 2시간 40여 분 만에 끝마쳤다. 단풍구경을 놓쳤다면, 뒷동산에 나들이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서 보자. 숨어 있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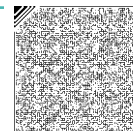
※ 모란(분당 방향)에서 57번 버스를 타면 신촌동 주민센터 앞에서 내릴 수 있다.

박인자 기자 ninga0805@hanmail.net



겨울철에 내복을 입으면 전국적으로 1조8천억 원의 난방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코드 보이소아이 심벌 삽입



e푸른성남

비전성남

Vision Seongnam

December 12

2009년 12월 · 통권 제173호

<http://snvision.cans21.net>

발행처 성남시 | 편집처 홍보담당관실 | 주소 우462-100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 전화 031-729-2075~6 | 팩스 031-729-20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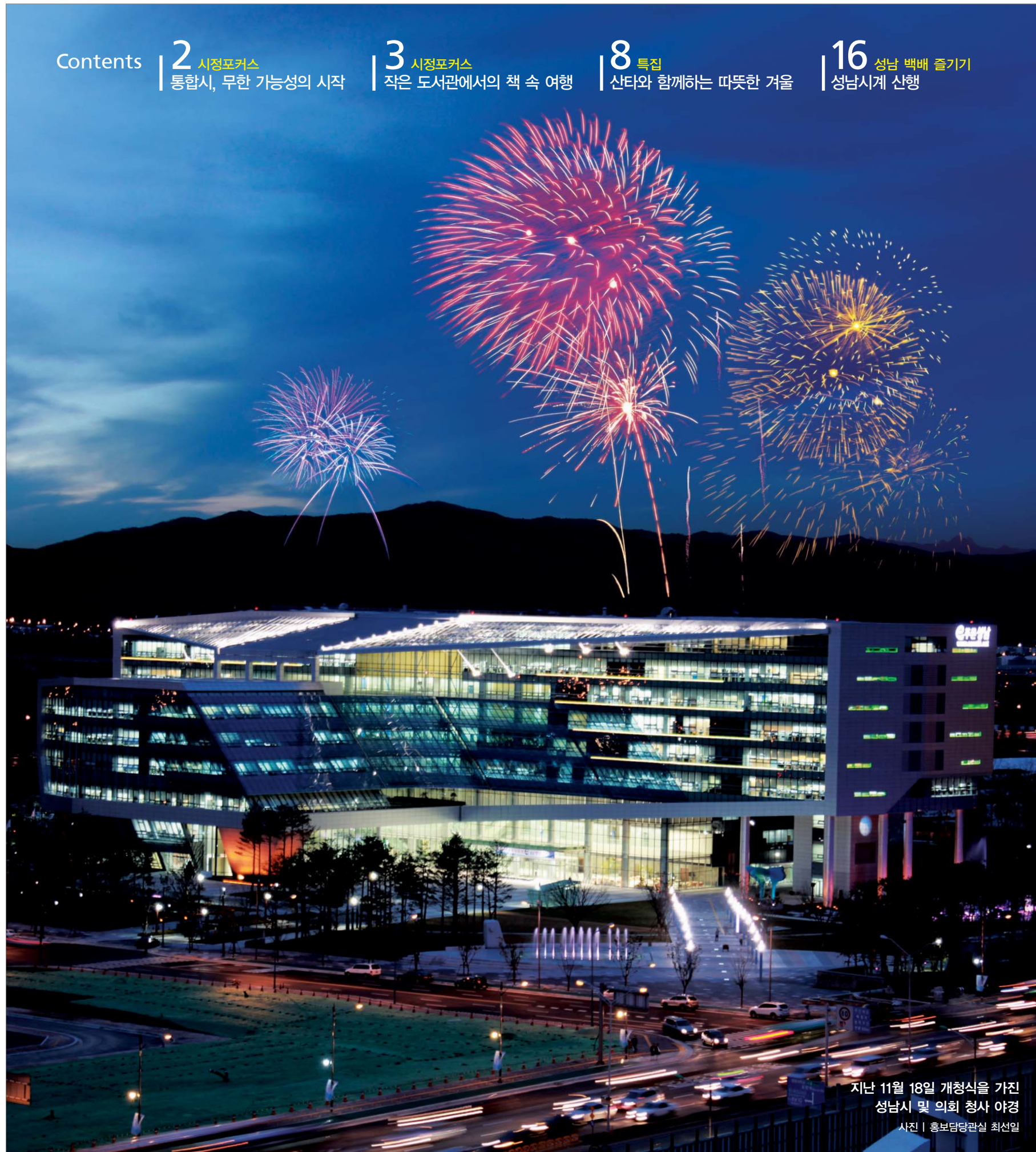
Contents

2 시정포커스
통합시, 무한 가능성의 시작

3 시정포커스
작은 도서관에서의 책 속 여행

8 특집
산타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16 성남 백배즐기기
성남시계 산행



지난 11월 18일 개청식을 가진
성남시 및 의회 청사 야경
사진 | 홍보담당관실 최선일

통합시, 무한 가능성의 시작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정부는 2014년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
나 정부 주도에 의한 일방적인 통합보다는 지역의 정서
나 주민의사가 반영된 자율적인 통합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최근 대통령의 의지와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
발표에서 100만 이상 통합시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성남·광주·하남
시의통합시 미래는 더욱 밝습니다.

● 통합시의 장점

통합시가 되면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행정·재정에 대
한 특례로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확보와 광주·하남시의
무한 잠재력(넓은 토지)이 우리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3개 시가 통합될 경우 권역별 특성을 살린 도시계획
으로 도시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특히 남한산성을 중심
으로 하는 광역도시망 건설, 첨단정보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집적 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대형 물류단지 조성
등 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 광주·하남시의
넓은 토지는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및 분당구의 리모
델링 추진 가속화)

또한 신도시의 대표 브랜드인 분당, 판교와 전통의
남한산성, 그리고 한강을 잇는 관광벨트 개발 등 광역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해집니다.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교육열에 대하여 미국, 영국 등
세계 최고 대학과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의
유치를 통해 서울 강남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교육도시
로도 거듭날 수 있을것입니다.

● 통합에 대한 우려

Q. 통합이 되면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개발이 더 미뤄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2008년도 성남시 총예산액은 2조1,163억 원이며, 이 중
분당구의 지방세(도세 포함) 수입은 5,275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 중 25%에 불과하며, 분당구에서 발생하는 지방
세의 세입은 거의 분당에서 소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이 되면 오히려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 확보와
순환용 주택개발을 통한 순환정비사업의 지속 추진이
가능해져 수정·중원구의 재개발과 분당구 아파트들이



리모델링할 때 부족한 임대아파트 확보로 수정·중원·
분당구 모두가 'win-win' 하게 될 것입니다.

Q. 성남시의 예산이 광주·하남으로 사용되나요?

우리가 가진 잠입인 재정력, 문화기반시설, 도시브랜드
가치 등이 '현재의 가치'라면 광주·하남시가 가진 넓은
면적과 개발 잠재력, 수려한 한강의 수변환경 등은
'미래의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남시는 현재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 미래의 가치를 선점해야 합니다.

과거의 통합사례에서 보면 통합 전 재정이 우세한 지
역으로 재정 집중이 가속화되어 지역편차를 더욱 심화
시킨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통합이 되더라도
성남시의 예산이 광주·하남으로 일방적으로 흘러들어
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2006년 7월, 4개의 자치단체를 통합한 제주도의 경우
통합 전 가장 큰 도시인 제주시로 인구와 재정이 집중되
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만 5,859개의 시·정·촌을 통·
폐합하여 3,472개로 줄였으나 이 역시 규모가 큰 도시로
재정이 집중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
적으로 예산심의권을 가진 시의회의 수가 광주·하남보
다는 성남지역이 많으므로 성남의 예산이 광주·하남으
로 흘러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통합시의 권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회의 상정된 6개 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은 '행정기
능의 증진으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의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 100만

이상 시·군에 대하여는 행정 및 재정적인 특례를 부여
한다고 발표하고 있어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과 자율성
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광주 학생이 성남의 학교를 다니고, 성남(분당) 학생이 광주의 학교를 다닐 수도 있나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한 2010학년도 학생배정 방안에
서 규정하고 있듯이 성남시는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으로
학군의 제1구역이 수정구·중원구, 제2구역이 분당구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통합시가 되더라도 교육부의 학생배정계획에 의해
학군배정은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광주의
학생들이 성남으로, 성남(분당)의 학생들이 광주로 배정
받는 원거리 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광주시 오포면과 같이 성남(분당)에 인접한 지
역의 경우 불가피하게 일부 학생들이 분당으로 학군이
배정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 역시 2011년 3월 오포중학
교가 개교되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성남시의 학생은 성남 시내 학교에서 충분히 수
용할 수 있어 광주시나 하남시의 학군으로 통학하는 일
은 발생될 수 없습니다.

● 통합시 기대효과

개발 잠재력(넓은 토지)이 풍부한 광주시와 깨끗한 수변
공간을 가지고 있는 하남시의 청정수역은 우리시의 새
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성남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야탑전자부품연구원,
게임허브센터 등의 IT, NT 등 첨단지식정보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광주·하남에는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및 업무
단지, 생태기능을 활용한 공원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3개 시의 공동의
번영과 이익을 창출해 지역발전과 불균형을 해소할 것
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행정의 슬림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행정기구,
각종 시 산하단체와 위원회 등의 통폐합으로 인한 경비
절감은 모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것
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29-2283

성남시, 여수동 시대 열다

성남시 및 의회 청사 개청식 가져



성남시가 36년간의 태평동 시대를 마감
하고 여수동 시대를 열었다. 시는 11월
18일 중원구 여수동 소재 신청사 중앙현
관 앞에서 성남 시청사 및 의회 개청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각계각층 인사 등 성남시민 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등 의식행사와 함께
모범시민상·문화상·경기도민상 수상
자와 청사건립유공자에 대한 시상
이 있었다.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는
지난 10월 시민의날 행사 때 취소됐던
e푸른콘서트와 불꽃놀이 행사가 열렸다.
이윤석·박선하의 사회로 진행된 e푸른
콘서트에는 가수 인순이를 비롯해 주현
미, 하춘화, 김경호, 림블리쉬, 뮤지컬
남한산성팀 등 문화예술인들이 출연해
시민들의 열띤 환호를 받았다.

대지 7만4,452㎡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진 신청사는 1~3층을 시민들
에게 전면 개방한다.

회계과 신청사건립팀 729-2787



작은 도서관에서의 책 속 여행

낙엽조차 사라진 제법 쌀쌀한 날씨가 벌써 따뜻함을 그림게 한다.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뽑아들고 따뜻한 곳에 배 깔고 엮드려 마음의 양식을 쌓아 보면 어떨까?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곳, 가까운 동주민센터 내 작은 도서관을 찾아보자.



태평3동 작은 도서관

예술이와 애립이, 명외는 태평초등학교 4학년 같은 반
어린이들이다. 오늘도 편안한복장으로 환한 곳은 태평3동
주민센터. “반기문 UN 사무총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꼬꼬꼬물세균대왕〉이 재미있어요.” “〈넌 문제야〉가
더 재밌었어요.”

한편에 마련된 세제로 손을 씻고 이층으로 올라가
면 밝고 예쁘게 꾸며진 도서관이 마중한다. 안에 들어가
면 작은 도서관 운영 담당자인 최은실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준다. “통합된 회원증 하나면 우리시 공공도서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책은 5,800여 권이 준비돼 있고,
필요 없거나 쌓아둔 책을 기증해 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라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길 부탁했다.

이엘리(가명·45) 씨는 이곳을 만남의 장소라고 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공공도서관은 멀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주 갈 수도 없지만, 이곳은 가까
워서 좋아요. 바깥도 따뜻해서 앉거나 엮드려서 안방처
럼 편히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난 뒤, 불임을 보고 이곳에서 아이와 다시 만나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가까이 있어 편해요.”

추워지는 날씨에 멀리 나가지 말고 집 가까이 있는
동주민센터로 마실을 가보자. 그리고 아이와 함께 마음
의 양식인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 보자.

수내1동 작은 도서관

올해 1월에 개관한 수내1동 작은 도서관은 소장도서
3,826권, 하루 이용 인원 60명, 하루 대출이 70권이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게
로비에 도서관이 꾸며져 있다. 차를 마시거나 창밖으로



공립 작은 도서관 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

도서관명	주소	면적(㎡)	장서수	열람석	개관일	연락처
태평1동 작은 도서관	수정구 태평1동 6932	81	4,371	23	2009.1.13	751-4944
태평3동 작은 도서관	수정구 태평3동 3752-1	91	5,800	6	2009.1.13	729-5936
상대원3동 작은 도서관	중원구 상대원3동 856	33.54	4,900	6	2009.1.13	729-6883
금광2동 작은 도서관	중원구 금광2동 3657	49.66	3,954	15	2009.1.13	729-6859
야탑1동 작은 도서관	분당구 야탑1동 363	71.8	3,000	25	2009.1.13	729-7836
수내1동 작은 도서관	분당구 수내1동 79 (수내동 30)	60	3,826	16	2009.1.13	729-7635

위탁 운영

도서관명	주소	면적(㎡)	장서수	열람석	개관일	연락처
한솔 작은 도서관	분당구 정자동 101 (한솔종합사회복지관 내)	190	10,089	35	2007.10.8	8022-1177
중원청소년 작은 도서관	중원구 공단로 288 (하대원동 240번지)	552	17,000	66	2008.11.17	750-4637~9
서현청소년 작은 도서관	분당구 서현동 312-5	232	23,000	40	2008.11.9	781-6159
정자청소년 작은 도서관	분당구 정자동 6-1	281	18,000	66	2009.3.8	783-4300 (내선 304)
정지역 작은 도서관	분당구 정자동 176-1 (정지역사 내)	42	3,972	6	2008.12.22	729-4853



사립 작은 도서관 현황

연번	문고명	주소	면적(㎡)	장서수	열람석	개관일
1	대운문고	중원구 금광1동 675번지	66	1,100	12	1998.7.16
2	책이랑문고	중원구 상대원1동 1901-2	76	8,500	60	1999.3.24
3	아름드리 새마을문고	분당구 야탑동 173 대원빌라	49	6,000	20	1999.6.12
4	푸른마을 새마을문고	분당구 수내3동 푸른마을 77번지 쌍용 A단지	63	7,002	13	2000.10.9
5	사회봉사 후원회 새마을문고	수정구 신흥2동 141번지	115	15,000	66	2002.2.15
6	한마을 사립문고	분당구 야탑3동 275-1번지 명지그린프라자 304호	83	4,100	40	2004.7.27
7	분당구미 어린이문고	분당구 구미동 29-1 더프라자2층	71	8,434	35	2005.3.15
8	한남교회 사립문고	중원구 성남동 2159	50	1,400	50	2005.4.8
9	아름빌 문고	중원구 하대원 249번지	201	5,680	50	2005.6.24
10	책마을 어린이문고	중원구 은행2동 959-1번지	80	6,385	30	2006.1.13
11	양지 어린이문고	수정구 양지동 471	34	2,660	10	2006.6.13
12	하은 어린이문고	수정구 태평2동 3482-2번지	83	2,200	23	2006.7.27
13	행복한 문고	중원구 상대원1동 1475번지	156	1,100	11	2006.9.11
14	지구촌 지혜센터문고	분당구 구미동 10번지	111	13,312	60	2007.2.1
15	하늘나무 어린이문고	중원구 은행2동 1034번지	75	1,500	50	2007.2.7

연번	문고명	주소	면적(㎡)	장서수	열람석	개관일
16	예광문고(전 산성문고)	중원구 상대원1동 1487-3	45	1,100	20	2007.3.9
17	물푸레 어린이문고	중원구 금광1동 697번지 2층	63	1,410	30	2007.3.29
18	새봄문고	중원구 상대원1동 1495번지	97	1,500	42	2007.3.29
19	푸른 어린이문고	수정구 산성동 148지(중)	58	1,696	30	2007.6.12
20	레이먼 광동도서관	중원구 금광2동 2500번지 레이먼 금광A 103동 1층	295	20,000	96	2007.9.14
21	호도예 도서관	분당구 야탑동 517번지	44	5,500	40	2007.11.6
22	희망문고	수정구 신흥3동 3410	33	1,000	16	2007.11.23
23	웃는책 도서관	분당구 야탑동 284-7 101호	33	1,200	30	2008.2.20
24	좋은나무 도서관	중원구 성남동 3773번지 4층	84	2,000	25	2008.3.13
25	아이들 도서관	분당구 야탑동 165 목련마을 주공 1단지 중합사회복지관 3층	82.5	1,200	40	2008.3.26
26	은진문고	분당구 야탑동 312-4 2층	40	2,314	16	2008.5.27
27	희망찬 어린이문고	중원구 성남동 4017번지 102호	33	1,136	21	2008.9.19
28	분당버전 도서관	분당구 야탑동 528-4 202호	105	7,800	15	2009.1.29
29	이지더전 도서관	분당구 삼평동 717	86.4	2,800	24	2009.7.21
30	판교LIG건영아파트 도서관	분당구 운중동 899 신안마을 4단지	153	1,000	35	2009.8.28

박경희 기자 jkh2234@hanmail.net
구현주 기자 sunlin-j@hanmail.net

시/정/알/림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기간 | 2009. 11. 27(금)~2010. 1. 22(금)

대상 | 개별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3만5천여 동

조사방법 | 조사요원이 현장 방문해 주택 특성 전수조사

활용 | 2010년 재산세(주택)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으로 활용

문의 | 각 구청 세무과 과표팀

수청구 729-5170~2 중원구 729-6170~2 분당구 729-7170~2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

내용 | 본인 명의의 소유토지현황 또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조상 땅을 찾아주는 제도로 지적 전상망을

활용해 소유현황 제공

신청방법

• 주민등록번호 있는 경우(1975. 7. 25 이후 사망)

시청 및 구청 시민과에 구비서류 준비해 방문하면

즉시 자료 제공

•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1975. 7. 25 이전 사망)

구비서류 검토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역시·도의 지적업무부서로 이송

신청시기 | 연중 업무시간(월~금요일 09:00~18:00)

구비서류

• 본인(상속권자) 신청 시는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는

인감인 첨부된 위임장과 신분증

• 사망자의 재산열람 시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

토지정보과 지적팀 729-3364

구청 시민과 토지정보팀

수청구 729-5101 중원구 729-6101 분당구 729-7103

성남시, 저출산 대응 ‘우수’

인구정책 경진대회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표창



성남시가 ‘2009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1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007년 전국 최우수 대통령 기관표창, 2008년 경기도 출산인구 정책평가 우수기관 표창에 이어 또 한 번의 큰 성과다.

시는 그동안 ‘자녀 양육하기 좋은 환경 성남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추진해왔다. 임신·출산, 양육, 노후, 인식개선 등 4개 분야에서 행복한 출산 준비 교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부부사랑 확인하기 등 총 214개 사업을 펼쳐 시민이 체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송영진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한 총괄기획팀, 임신·출산지원팀, 양육지원팀, 고령화대책팀과 실무부서 팀장들로 편성된 T/F팀을 구성하고, 214개 사업의 각 대응부서를 지정 운영해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둘째 자녀에게도 3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중학교 무료급식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한다. 시는 내년도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발굴·확대 추진해 선진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 시책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729-2833

믿고 마실 수 있는 성남시 수돗물 탄생

PET병 ‘남한산성 참 맑은 물’ 생산



수돗물을 PET병에 담아 생수처럼 마실 수 있는 물이 11월 16일부터 생산·공급된다. 수돗물을 브랜드화한 ‘남한산성 참 맑은 물’은 일반 공급용 350ml와 500ml, 비상급수용 1.8ℓ 등 3종으로 생산된다.

시는 전국 최고의 PET병 수돗물 생산을 위해 지난 2월부터 10여 개월간 총 5억5천여만 원을 투입, 수정구 북정정수장에 PET병 물 생산 자동화설비, 활성탄 및 혼합산화제 등의 설비를 갖춘 280㎡ 규모의 병입수 생산시설을 10월 30일 완공했다.

이번 PET병 수돗물은 일주일에 5천 병, 연간 20만 병을 생산해 각 구청 민원실 냉장 쇼케이스 등에 비치,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하며, 단수 시 비상급수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시민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행사 개최 시 일주일 전에 신청(성남시청 정수과 729-4155)하면 최대 2천 병까지 무상지원하며, 공공기관 대규모 행사는 사전 협의 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성남시 수돗물 상표명으로 채택된 ‘남한산성 참 맑은 물’은 다음 달 중 상표출원 및 등록 예정이다.

정수과 수질운영팀 729-4153

동절기 화재예방 이렇게



전기화재 예방

- 가정용 배전반의 퓨즈는 전기용량이 조금만 넘쳐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장식용 소형전구를 오래 켜두면 열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정전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난방기구 관리

-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적합하거나 전문기관의 검사 제품 등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 난로를 켜 채 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잠자리에 들 때는 가급적 난방기구를 끄고 잡니다.
- 사용 중에 기름을 넣어서는 안 되며 급유 시 흘린 기름은 반드시 닦아내야 합니다.

일반화재 예방

- 석유난로의 불을 켜 채 이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석유난로에 기름을 넣을 때에는 난로의 스위치를 끄고 똑바로 놓은 다음 가까운 곳에 인화물질이 없도록 합니다.
- 취침 시에는 난방기구를 꺼야 합니다.
- 불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 쓰레기통 속이나 화학약품의 저장소 등에 성냥 등 인화성 물질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 번개가 심한 날은 컴퓨터, TV 등을 켜지 않도록 합니다.
- 화재발생에 대비해 대피요령을 미리 익혀둡니다.
- 소화기 사용방법을 평소 익혀둡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인적재난팀 729-4442

여성복지회관 2010년 상반기 수강생 모집

12월 7일부터 전문기술·사회문화 교육 26개 과목



여성복지회관 729-2951~6

전문기술 교육

과 목	인원(명)	최초 접수일	교육일정		교육내용
			요일	시간	
한식조리기능사	30	12.10	월, 금	10:00~13:00	한식조리기능사 이론과 실기
생활요리	30	12.10	월	14:00~17:00	기본생활요리 및 손님초대를 위한 일품요리
제과·제빵 기능사	30	12.10	월, 수	10:00~13:00	제과·제빵 이론과 실기
생활제과제빵	30	12.10	금	10:00~13:00	실생활에 필요한 빵, 케이크, 쿠키, 파이 만들기
현대이상	25	12. 9	화, 수, 목	10:00~13:00	일상복(스커트, 블라우스, 원피스, 바지, 재킷 등) 만들기
고전의상	25	12. 9	월, 수, 금	10:00~13:00	전통한복 및 생활한복
퀼트·홈패션	25	12. 9	화, 목	10:00~13:00	커튼, 침대커버, 이불, 가방 및 생활소품 등 제작
한 지 공 예	25	12. 9	화, 목	10:00~13:00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자격증 취득(종이접기 포함)
미용사 자격증	25	12. 9	화, 수, 목, 금	10:00~13:00	자격시험을 대비한 실기 및 이론(커트, 파마, 세팅, 웨이브 등)
미용창업 및 가정헤어	20	12. 9	월, 수, 금	14:00~17:00	실무가능한 미용창업 및 가정헤어
피부관리사	16	12. 9	화, 목	14:00~17:00	피부관리사 자격증 취득과정
화훼장식기능사	20	12. 9	수	10:00~13:00	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꽃집창업	20	12. 9	수	14:00~17:00	꽃집창업을 위한 포장법, 생활꽃꽂이, 리본연출 등
컴퓨터 입문	30	12.10	월, 수	09:30~11:00	초보를 위한 문서작성, 윈도우, 인터넷
컴퓨터 활용	30	12.10	화, 목	09:30~11:00	블로그, 카페 만들기,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익히기, ITQ 인터넷
자격증	30	12.10	월, 수	11:30~13:30	워드프로세서1·2급, 컴퓨터 활용능력3급
중급	30	12.10	화, 목	11:30~13:30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인터넷 쇼핑물 만들기	20	12.10	금	10:00~13:00	인터넷 마케팅 방법, 카페24를 이용한 독자적인 쇼핑물 제작

사회문화 교육

과 목	인원(명)	최초 접수일	교육일정		교육내용
			요일	시간	
수목화	20	12. 9	금	10:00~13:00	사군자, 문인화
민화	20	12. 9	월	14:00~17:00	정겨운 민화 그리기
영어회화	24	12. 9	화, 목	10:00~12:00	생활 영어회화
일어회화	24	12. 9	월, 수	10:00~12:00	생활 일본어회화
중국어회화	24	12. 9	화, 목	14:00~16:00	생활 중국어회화
교양한문	25	12. 9	화, 목	10:00~12:00	실생활에 필요한 한자와 한문
에어로빅	25	12. 9	월~금	10:00~11:00	유산소성 운동을 통한 심폐 지구력 강화 운동
태극권	25	12. 9	월, 수, 금	10:00~12:00	양식 태극권 및 중국 스트레칭

정치후원금!
바른 정치를 위한 깨끗한 후원금입니다

정치후원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인터넷으로 쉽게 : 정치자금기부센터(www.give.go.kr)
-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 숫자 5391~4~4~4 + 통신사 인터넷 접속 (011-1111-5391~4~4~4)
- 제휴카드로 편리하게 : 신용카드, 포인트카드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후원금 증명서 발급)
- 대한민국회 후원금 : www.assembly.go.kr에서 후원

정치후원금 후원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인 금액은 10만원 이하)

정치후원금 : www.give.go.kr을 통해 후원금을 후원하시면 후원금 증명서 발급과 후원금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내는 정치자금기부금 증명서 발급)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특특! 법률상담

지급명령제도



Q A씨는 사업을 하는 친구 B씨에게 지난해 5월 3,000만 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었다. 1년만 쓰고 돌려준다면 친구는 변제일이 지난 올해 5월 이후에도 미안하다며 차일피일 채권의 변제를 미루고 있다. A씨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돈을 변제받고 싶다.

A 민사소송법에서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촉절차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해 지급을 명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위의 사례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변제를 했다든지 하는 채권의 유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독촉절차 방법보다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다.

안신재 | 성남시 예산법무과·법학 박사

취업이 희망!

취업상담실 운영

성남시 여성복지회관은 성남 거주 여성들에게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여성의 취업을 돕고자 다음과 같이 취업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

시간 | 월~금요일(10:00~15:00, 심리검사 및

취업대비교실, 사전예약)

대상 | 성남시 거주 18세 이상 여성

상담 내용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일반구직, 가사도우미 등 일용직)

구인업체 인력지원서비스

심리검사 실시(직업성향도, MBTI)

구인·구직 알선

상담 방법

구직자 신분증(가사도우미 : 보건증), 구직표

구인업체 사업자등록증사본, 구인표

방문 및 전화상담(729-2954)

취업대비교실 운영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요령 등,

온라인 서류접수 시 유의사항

여성복지회관 729-2954



성남시의회 법률 고문변호사 위촉

성남시의회(의장 김대진)는 지난 11월 16일 의정실에서 시의회 법률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김성만, 이현웅 변호사로 성남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변론전 등 활동이 탁월한 변호사로 선정됐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앞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규칙안·청원 등 법령사안의 검토,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임, 기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 해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성남시민 리더십 포럼 참석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은 지난 11월 9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사단법인 한국 지역사회교육연구회에서 주최한 ‘성남시민 리더십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김대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교육운동은 가정에서는 건강함을, 학교에서는 즐거움을, 지역사회에서는 활기를 불어넣어 행복한 도시정원을 만들어가는 운동이라고 설명하고, 성남시의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시민들의 리더십 함양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여성의원 ‘여성정책 간담회’ 개최



성남시의회 여성의원들은 지난 11월 3일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여성단체와 성남시 여성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남시 여성의원 김해숙, 한성심, 이순복, 김현경 의원과 20여 명의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들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폭력피해자 보호와 예방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기로 했다.

성남시의회 우수지자체상, 우수의원 선정



성남시의회(의장 김대진)는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인권포럼(대표 안미선)에서 개최한 경기도 지방의회 모니터링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11월 4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기초단체 우수의원에 대한 시상식이 병행 실시됐으며 성남시의회에서는 정기영 의원과 김현경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09년도 성남시의회 의정연수 실시



성남시의회(의장 김대진)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2박3일간 부산광역시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09년도 성남시의회 의원연수’를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의정연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임기 말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데 소중한 시간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가장문화예술학교 등 지역문화탐방과 고리원자력발전소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정보는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활용될 계획이다.

영어 배우며 세계로 꿈을 키워요

영어로 말하고 듣고 체험하는 e푸른성남 금상영어체험센터 개관



학교 내 영어마을 ‘e푸른성남 금상영어체험센터’가 지난 11월 2일 문을 열었다. 지난해 청솔초등학교와 창곡중학교 영어체험센터에 이어 시에서 세 번째로 개관한 금상영어체험센터는 수정구·중원구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선생님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용영어 학습공간·원어민 강사 등 교육환경 갖춰
금상초등학교(중원구 금상1동)는 12개 교실을 리모델링해 IT 월드관, 영어전용 도서관, 생활문화·가족문화·공공

문화·직업문화·역사문화관, 세계여행체험실, 멀티다목적실 등 상황별 실용영어체험 학습공간을 마련했다. 원어민 강사 6명, 내국인 강사 4명이 교육을 담당하고 100% 영어로만 대화한다. 공간별 테마에 맞는 체험을 즐기는 동시에 학습이 이루어져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는 소중한 기회를 갖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게 된다.

호주 현지와의 화상영어 수업을 받으며 “학교에 생긴 영어체험센터에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좋아요”라며 즐거워하는 김민솔(금상초 5) 학생, “지금까지는 학원에서

영어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이곳을 이용할 거예요”라며 “좋은 환경에서 영어수업을 받는 것이 영광”이라는 조은영(금상초 5) 학생 등 모두가 새로운 교육환경 체험에 들뜬 모습이다.

방과후 학교, 주말 영어광장 등 8개 프로그램 운영
각 학교와 교육청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일체험, 국제화 페스티벌 프로그램, 개별 신청이 가능한 방과 후 학교, 주말 영어광장, 방학 중 캠프, 학부모 영어교실 등 8개 프로그램이 있으며 ‘방과 후 학교’(월 1만~1만 5천 원)와 ‘방학중 캠프’(미정)를 제외한 참가비는 무료다. 원어민 강사인 Frank Sayapheth(캐나다)는 “학생들이 실용회화 위주로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교육을 받으며 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희망적인 장래를 설계할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시대에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은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e푸른성남 금상영어체험센터’에서 세계 속으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프로그램 신청이나 문의사항은 홈페이지(<http://gsweet.sneec.or.kr>)를 참조하면 된다.

윤현자 기자 yoonh1107@hanmail.net



성남영어마을
겨울방학 영어캠프 개최



성남영어마을에서 관내 청소년들이 겨울방학동안 영어권 세계의 문화와 생활체험 기회를 갖는 영어캠프가 열린다. ‘SNET Olympics’를 주제로 1차 캠프는 2010년 1월 4~16일, 2차 캠프는 1월 18~30일 성남영어마을(분당구 율동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내)에서 12박13일간의 일정을 갖는다.

이번 영어캠프는 2010년 2월 캐나다 동계올림픽에 맞춰 올림픽의 역사·전통·문화·지리 등을 탐험하고, 주제에 맞는 재미있는 활동들을 통해 영어로 놀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내는 자리다.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 성남영어마을 홈페이지(www.snet.or.kr)에서 선착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45만 원이며 저소득 학생은 무료다.

한편 주최측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 입소자 전원에게 백신접종, 체온체크, 손세정제 상시 사용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신종플루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성남영어마을 725-5600

클릭, 청소년 뉴스CLICK

수정청소년수련관·서울종합예술학교 업무협약 체결
수정청소년수련관과 서울종합예술학교는 지난 10월 23일 학술교류 협력관계 모색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육인프라에 대한 교류 ▲특강 교수진 상호 협조 ▲특기 장학생 추천 및 입학특전 부여 등이 추진된다.

수정청소년수련관 740-5280

고3수험생 위한 ‘Three Go(고3) Festival’
중원청소년수련관은 11월 24일~12월 5일 고3수험생을 대상으로 축제를 연다. 성일여고·태원고·풍생고 등 6개 학교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축제는 ▲마술과 리더십, 건강한 이성교제 방법, 알뜰한 사회생활을 위한 경제교육 등 전문가 초청특강 ▲청소년 우수영화 상영 및 국내 유명 비보이 댄스공연 등 문화공연 활동 ▲농구대회 및 단체줄넘기대회 등 스포츠 활동으로 꾸며진다.

중원청소년수련관 750-4683

서현청소년수련관
오는 11월 28일(토 13:00~16:00) 수련관 이용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통놀이문화 체험을 진행한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제452호인 이 체험은 팽이 만들기, 매듭공예, 비석치기, 배나 체험, 달고나 체험 등의 내용으로 꾸며지며 선착순 사전 접수한다. 참가비는 1천 원.

수련사업팀 781-6185

12월 12일(토 10:00~12:00)에는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 ‘심리검사의 날’이 진행된다.

상담실 781-6157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Community Youth Safety-Net(CYS-Net)’의 허브기관인 청소년지원센터(중원청소년수련관 5층)는 사례평가 후 해결에 필요한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시간 :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7:00

• 놀이치료 놀이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아동 심리 및 정서를 이해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무료

• 미술치료 놀이와 미술 등 매개체를 통한 심리적 표현놀이 활동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서·인지 발달을 유도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무료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88(24시간 연중무휴) 심리적 문제 상담, 참여활동, 자원봉사 정보제공, 유해환경 신고

청소년지원센터 국번 없이 1388

중원도서관 원예교실 연말특강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원예활동 교실이 오는 12월 5일, 12일(토 10:00~12:00) 열린다. 대상은 6~7세 유아와 부모 15가족으로 압화로 크리스마스 리스장식 만들기, 포인세티아 심기 등이 진행된다. 희망가족은 11월 27~30일 선착순 인터넷(<http://jw.snlib.net>) 접수하면 된다.

정보봉사파트 752-3916

산타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노인분들에게 사랑을전하는 다살림복지회



매주 수요일 재가노인복지센터 다살림복지회(분당구 수내3동)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푸드뱅크에서 지원받은 빵을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전해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빵이 남으면 장애인 시설에 전한다.

1999년에 설립된 이곳에서 2003년부터 근무한 김태희(50) 사무국장은 “어르신들을 위하여 내가 발전해 가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사회복지사 이기연(29) 과장은 이곳을 찾는 어르신과 많은 봉사자들을 늘 상냥하게 대하며 편안하게 상담해주고 있다.

이곳에는 50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고 있다. 오래도록 발마사지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린 요양보호사 윤명순(61) 씨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앞으로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정성을 다하게 된다”며

모임을 같이하는 많은 여성들을 자원봉사자로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효자촌 송종순(57) 씨와 정자동 김금옥(53) 씨는 “처음 하는 봉사라서 더 즐겁다”고 한다.

봉사자들은 작지만 스스로내는 후원금을 모아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에게 계란을 전달해드리고, 매주 수요일엔 빵을 기다리는 어르신들 위해 바빠질 것이라고 한다. 연말이면 송년잔치, 떡국떡 나눔 행사, 옷놀이, 속옷 전달하기,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 등 많은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다살림복지회 713-9001

심고 가꾸는 마음으로 나눌 때도 넉넉한 정자동사람들



새마을지도자와 자율방범대에서 봉사하고 있는 정자동 김영대(53) 씨는 풍산목재를 운영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농작물 키우기에 매달린다. 비어있는 공한지에 쓰레기를 치우고 밭을 일구어 해마다 농산물을 수확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해 온 그를 여러 봉사자들이 돕고 있다.

통장·부녀회·어머니 자율방범대 등 정자동 봉사자가 20여 명 참여, 고구마를 캔 뒤 원두막에서 나누는 꿀맛 같은 점심식사는 맘 흘린 후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특히 며칠 전 부임해 온 최승자 정자동장은 일요일에도 가족과 함께 봉사에 참여해서 봉사자들에게 큰 격려가 됐다.

함께 고구마 캐기 봉사를 나온 어머니 자율방범대장 양정자(53) 씨는 “감자를 캔 후 또 고구마를 심었기 때문에 고구마가 모두 날씬하다”며 조금씩만 힘을 보태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봉사인 것 같다고 했다. 고구마 캐기에 이틀째 참여하고 있는 김용식(50) 씨 내외는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도 알게 되고, 단합하는 모습도 보기 좋아 힘든 줄 모른다”고 했다.

올해는 감자를 1톤 정도 수확해서 정자동2동에 이웃돕기로 전달했고, 고구마밭 옆에 심은 무와 총각무는 모두 김치를 담가 동 수혜자에게, 2톤 정도 수확한 고구마는 모두 이웃돕기로 전달했다.

정자동 주민센터 729-7682

새마을부녀회와 이주여성이 함께한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지난 11월 10일 야탑동 새마을회관 4층에서는 성남시새마을회(회장 김상현)가 주최하고 새마을부녀회(회장 유이재)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고추장 담가주기’ 행사가 열렸다.

각동 부녀회장 4명과 협의회(회장) 임원, 이주여성 15명이 함께 담긴 고추장 23통은 각 동의 홀몸 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수급자에게 모두 전달된다.

몽골에서 온 온드라(신항1동) 씨는 7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왔는데 고추장 담그는 법을 배우는 동안 남편이 아들을 돌봐줬다. 중국에서 시집은 전정희

(상대원2동) 씨는 “지난번 결연을 맺은 친정 엄마와 오랜만에 연락이 됐다”면서 친정 엄마와 함께 와서 부녀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고추장 만들기에 열심이다.

많은 양의 고추장 재료를 보고 엄두도 못 내더니, 역시 부녀회장들의 주부경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손발이 척척 맞는다.

새마을부녀회는 앞으로 12월 2일 농협하나로유통센터 김장 봉사뿐 아니라 각 동의 이웃사랑 김장담가주기 행사, 연중 실시해온 헌옷 모으기 행사를 12월까지 진행한다.

성남시새마을회 708-6900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우리 주변에는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하고 있는 이웃이 많다. 이들에게 힘을 주는 산타들의 훈훈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 그 따뜻한 온기를 따라가 보았다.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 장영희 기자 essay45@hanmail.net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아직도 연탄 쓰는 곳이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겠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만여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2004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은 지난 6년 동안 1,600만 장의 연탄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울에 본부를, 성남을 비롯한 전국 40여 개 시·군에 지부를 두고 활동 중이다.

성남지부는 지난해 성남지역 123세대에 4만여 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20여 개 봉사단체와 성남시민들이 참여해 저소득·홀몸노인·장애인 가정에 한 가구당 300여 장을 지원했다.

올해도 지난 10월 15일 삼성테크원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성남시내 130여 가정에 ‘사랑의 연탄’을 배달한다. 11월 7일엔 지구촌교회의 130명이 수정구 창곡동에서

연탄나눔을 했는데, 이날 윤근병(72) 어르신은 쌓여진 연탄을 바라보며 고맙다는 말을 연신 되풀이했다. 전달한 이도 받은 이도 모두 환한 웃음을 지었다.

지금까지 정자청소년수련관 동아리, 동서울대학, SK C&C,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석유관리연구원, 구미교회, 환경실천중앙연합 가족봉사단 등 학생부터 기업봉사단, 종교·시민단체가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11월 25일 전자부품연구원, 12월 26일 성남시 기독교청년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연탄나눔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성남지부로 연락하면 된다. 현재 연탄 기증자와 배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성남지부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 문의 731-5033



중원청소년수련관의 물래산타 대작전

중원청소년수련관(관장 이종립)은 연말을 맞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홀몸노인 등의 가정과 기관을 방문해 이벤트와 선물 전달 등의 행사를 실시한다.

‘작은 나눔 큰 행복’ 물래산타 대작전은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산타학교에서 교육받은 200명의 산타들이 300명의 청소년들에게 신나는 이벤트와 함께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다.

시 거주 청소년과 지역사회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산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12월 19일(토) 오리엔테이션(공동체활동·명예산타 위촉식), 12월 20일(일) 산타학교(산타 발성 연습·노래울동 등의 이벤트 연습, 카드 작성) 등 산타양성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산타학교 참가신청은 12월 12일까지 방문이나 이메일로 접수한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한밤의 산타클로스’를 기대해 볼 만하다.

중원청소년수련관 750-4680 www.jwyyouth.or.kr



휴편나눔재단의 제1회 장학금 수여식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재능을 펼치지 못한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소식도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휴편나눔재단(이사장 이재환)은 오는 12월 5일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진다. 성취우수·자립지원·특기자 등 세 분야의 장학생 8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금 수여식은 상·하반기 연 2회 진행될 예정이다.

휴편나눔재단(분당구 정자동)은 교육문화기업인 (주)위즈코리아 이재환 대표가 지난 2003년부터 위즈사랑

나눔회라는 봉사모임을 조직해 봉사활동, 장학 후원 사업 등을 해오다가 지난 9월 재단으로 정식 출범했다.

재단은 지난 10월 회원들이 모은 생필품이 담긴 ‘사랑의 상자’를 강원도 복지시설 샘사랑마을에 전달한 데 이어 12월 말에는 성남 에덴의집에 전달할 예정이다. 월드비전을 통해 10월부터 매월 10명의 아프리카 어린이 후원사업도 진행한다. 이재환 대표는 <백만불짜리 마인드>, <<성공은 꿈꾸는 자의 몫이다>> 등의 저자이기도 하다.

휴편나눔재단 1577-5009 http://dreamjh.com



장애인 난타그룹 ‘레인보우 두들소리’



세상을 향한 특별한 두드림

심장을 두드리는 시원(始原)의 소리가 울린다.

7명으로 구성된 무지개동산 예가원(분당구 아탑3동)의 장애인 난타그룹 ‘레인보우 두들소리’가 오는 11월 26일(목) ‘장애인 재활기금마련 후원의 밤’ 무대에서의 멋진 연주를 위해 연습에 한창이다.

‘레인보우 두들소리’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숨은 끼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예가원에서 2002년 창단했다.

예가원 김윤례 실장은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생활을 고민하다가 난타를 알게 됐어요. 53명의 원생 가운데 7명을 선발해 예가원 복지사 선생님들이 전문 강사에게 배워서 다시 이들에게 리듬을 익히고 박자를 셀 수 있도록 가르쳤는데, 처음 1년 동안은 거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어요”라며 초창기를 회상했다. “하지만 배우는 것이 더딘 사람들이니 조바심내지 말자 했고, 단순히 흥미와 재능을 이끌기 위해 시작했지만 단 1회 공연일지라도 온 열정과 실력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매일 연습했어요. 특히 난타 연주는 개인 기량 못지않게 팀원 간의 호흡이 중요해서 팀원들은 이를 위해 하루에 3~4시간씩 맹연습을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더딘 연습, 끈기로 이겨 150여 회 국내외 공연

10분짜리 연주 프로그램을 익히는 데 1년이 걸릴 만큼 많은 연습시간이 필요한 이들이었지만 꾸준하게 연습한 결과, 창단 이후 지난 6년간 늘 새로운 내용의 연주로 다양한 국내 행사 공연은 물론 미국 시카고·LA, 일본 나고야 초청 순회공연 등 국내외에서 150여 회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관객들의 호응과 박수가 좋다는 임관택 씨, 무대에서는 것이 신난다는 남덕현 씨, 난타를 직업으로 생각한다는 민원기 씨, 무대에 서면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윤병례 씨,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난타를 하고 싶다는



심진섭 씨, 책임감이 강한 변산재 씨, 언제나 웃는 얼굴인 정향숙 씨 등 7명의 ‘레인보우 두들소리’ 팀원들. 함께할 수 있고, 연주하는 자신이나 공연을 즐기는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에 더욱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김 실장은 “다양한 무대에서의 공연을 통해 이들은 복지수혜자에서 복지제공자로의 자긍심이 증대됐고, 예술적 잠재능력이 발현돼 사회생활의 효과를 극대화했다”면서 “취미생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난타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세상을 향한 특별한 두드림 ‘레인보우 두들소리’의 무대 위 열정은 오는 11월 26일(목) 오후 7시 코리아다자 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있을 ‘장애인 재활기금마련 후원의 밤’에서 직접 느낄 수 있다. 김 실장은 “영혼의 말바닥에서 울리는 독특하고 순수한 두드림, 이들의 기적의 소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가원 705-2366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엔돌핀 UP!
동아리 탐방

♪ 한바탕 춤으로 스트레스 확 날려버려요 ♪ 터줏대감물패 사방사방 각설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디스코, 디스코, 돌리고, 돌리고~” 대원지구대 뒤편에 자리한 대원근린공원에서 북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소리다.

오전 10시 다소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연습에 임하고 있는 수상한 주부들을 만났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터줏대감물패 사방사방 각설이’(이하 사방사방 각설이·강사 윤희정) 동호회 회원들이다.

한바탕 뛰고 나면 몸도 마음도 젊어져

사방사방 각설이는 올해로 3년째 접어들었다고 한다. 20여 명의 회원 모두가 중년이 훌쩍 넘은 주부들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풍물에 관심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풍물이다 보니 하게 됐어요.”, “풍물을 하면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아요”라며 호탕하게 웃는 회원들 중 유일하게 청일집인임정치랑 씨는 일본에서 살아 왔다. 그는 사물놀이와 징이 특기인데 근래에 각설이를 시작하게 됐다.

윤희정(사진 뒷쪽 오른쪽 3번째) 강사는 10년 넘게 ‘소리’를 한 사람이다. 소리에 남다른 관심이 많았으나 성대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하고 난 뒤부터 좋아하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다 각설이 동호회를 만들게 됐고, 난타공연도 함께하고 있다. 윤강사는 현재 ‘국립극장모듬북’ 회원이기도 하다.

각설이를 배운 지 1년이 넘는 전필순, 배옥자 주부와

새내기 고정순 주부는 하나같이 말한다. “한바탕 뛰고 나면요, 운동도 되고 몸도 마음도 젊어지고 스트레스도 확 날아간다니까요.” 이제 두 달 됐다는 신입생 고정순 씨는 “마침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지도를 잘 받고 있어요”라며 연신 몸을 움직인다.

신명나는 공연으로 즐거움 전해

사방사방 각설이는 중동과 상대원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하는 주부들로 구성됐다. 신입생도 몇 사람 있지만 회원들 대부분이 수년간 사물놀이 경험에 있는 베테랑들이라고 한다. 보기엔 아무렇게나 춤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주로 스텝 밟기로 이루어지는데, 다이아몬드·디스코·트위스트·탱고 등 댄스의 모든 동작이 필요하다고.

사랑방문화클럽 회원이기도 한 사방사방 각설이는 정월대보름굿·단오굿 등의 공연은 물론 복정동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연습은 중동과 상대원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공연을 앞두고 몇 주 전부터는 맹연습에 들어간다고 한다. 각설이 공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환영이다.

중동 주민자치센터 729-6637
상대원동 주민자치센터 729-6737
이길순 기자 eks323@hanmail.net

기획연재 성남 역사 이야기 11



낙생(樂生) 지역의 문화유산

서울 가는 사신들이 쉬어 가던 낙생역

서판교 지역은 옛 광주 낙생(樂生)인데 영락장생(榮樂長生)의 땅이다. 고구려와 백제시대의 무덤과 구석기 문화유적이 발굴돼 오래전부터 인류가 거주한 역사가 확인됐다. 그리고 낙생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꼭 지나가는 길목이었다.

고려 말에 이곡(李穀)이 〈청풍정기(淸風亭記)〉에서 낙생역에 머물렀다고 한 기록을 비롯해 훗날 왜(倭)나 동남아시아 사신들이 서울로 가는 길에 낙생역에서 쉬어 갔다고 한다. 이 지역에는 여러가지 문화유산이 있다.

이 지역 문화유산 가운데 안타깝게도 사라져 버린 문화유산으로 낙생행궁(樂生行宮)이 있다. 조선 건국 이래 역대 임금이 성남지역에서 군사훈련 강무(講武)를 실시할 때나, 청계산과 문현산 등지에서 사냥을 하고 머문 곳이었다. 수만 명의 군사를 사열하고 임금은 탄전 주변이나 낙생역 앞 들만, 낙생행궁에서 머물기도 했다. 세종임금은 온천에 갈 때에도 이곳을 지나다가 낙생에서 머물렀다.

궁내동의 전주이씨 인물들의 묘소 ‘정희사’

낙생 지역에서는 저명한 역사 인물들의 묘소를 통해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궁내동(산 17-1번지)에는 전주이씨 인물들의 묘소와 사당 ‘정희사(靖禧祠)’(사진 위)가 있다. 조선 중종의 왕자인 덕양군 이기(德陽君 李岐)는 이복형제인 인종·명종과 우애가 돈독했고, 종부시 도제조를 비롯한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시호는 정희(靖禧)다. 아들인 풍산군 이종린(豊山君 李宗麟) 묘역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36호로 지정됐다. 구천군 이수의 호종훈(扈從勳, 임금이 탄 수레를 호위해 따르던 일 또는 그런 사람의 훈공)으로 현록대부(조선시대, 정일품 종친(宗親)의 품계)에 추증됐다.

신독재 김집(愼獨齋 金集)이 지은 충숙공 이수묘갈명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왕실이 경사가 연이어(天衍衍慶) / 현철이 태어났네(武生賢哲) / 풍산군의 바른 행성(豊山飭行) 가업의 기반 되었으니(以基家業) / 공이 드디어 생겨나세(公遂胚胎) / 가문을 더 빛내려 했네(將多前烈)

충숙공 이수, 임금 호위 공로로 정품 현록대부에

충숙공 이수(李睟·1569~1645) 선생은 이종린의 아들이다. 인품이 준수하고 두각을 나타내어 큰 그릇이 될 것으로 사람들이 알았다. 임진왜란 때 의분에 찬 목소리로 형 구성군에게 “이 아우는 어버이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호가(扈駕, 임금이 탄 수레를 호위하며 뒤따르던 일)를 못했는데, 형님이 집안일을 맡아 주시면 저는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는 곧 몸을 빼어 달려갔다. 그리하여 왕명을 받들고 다시 분조(分朝)로 간 다음 곧바로 선전관이 됐는데, 그 역시 남다른 대우였다. 묘소는 경기도 기념물 제54호로 지정됐다.

1615년 역적 이이첨이 광해군의 비위를 맞추어 높아 나면서 영창대군을 죽이고 모후(母后)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배했을 때 공은 이를 통탄해 항의하는 상소를 올려 이이첨의 죄를 논했다가 순천(順天)으로 유배돼 4년 후에 풀려났다.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태연한 마음으로 시와 술을 벗 삼아 즐겼는데, 전후의 수재(守宰, 수령)들도 다 존경하며 예우했고 그 고을 백성들까지도 모두 감탄했다.

인조 2년(1624)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임금을 공주로 모시고 갔다. 이때 사람들에게 “이괄의 관상이 흉해서 오래지 않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곧 그 말대로 돼 사람들이 공의 선견지명에 감복했다. 난이 평정된 후, 임금이 사석에서 그를 만나면 언제나 직접 술잔을 들어 권하면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종친 호칭을 썼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도 국왕을 강화로 모시니, 죽은 뒤 정1품 벼슬에만 주는 현록대부(顯錄大夫)에 올랐다.

그가 세상을 뜨니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 죽었다고 애석해 했으며, 아래에 있는 벼슬아치들까지도 모두 한숨을 짓거나 눈물 흘리며 곡전(哭奠) 드라기에 바빴다. 공은 어릴 때부터 성품이 호탕해 범도 같은 것에 구애받지 않았는데 자라면서 학문을 좋아해 월 새 없이 노력했고 어진 이를 좋아하고 착한 일 즐거기를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도 했다. 그는 남이 못할 일을 많이 했는데, 그의 본 바탕이 아름다운 탓이기도 하였지만 역시 배움의 힘을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이다.

현장 스케치

탄천에 찾아오는 겨울 손님 철새



고방오리



쇠오리

해마다 10월경에는 겨울 철새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 이중 일부는 우리시로 날아온다. 우리시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탄천과 7개 정도의 저수지에서 철새들이 겨우살이를 한다.

우리시에서 실시한 2005~2008년 탄천 조류 모니터링 총괄 결과표를 보면 탄천에서 볼 수 있는 새의 종류는 30여 종이 된다. 겨울에는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는데 흰뺨검둥오리·쇠오리·청둥오리를 비롯해 고방오리, 비오리, 넓적부리, 백할미새, 논병아리, 흰목물떼새, 흰죽지, 알락오리 등이 탄천에서 만날 수 있는 새다. 탄천에서 새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불정교~미금교 구간이고, 여러 종류의 새를 볼 수 있는 곳은 대곡교~폐기물 선별장 구간이다.

흰뺨검둥오리·쇠오리 등 수면성 오리류 많아

탄천에 날아오는 새 중에는 특히 오리류가 많다. 오리는 수면성 오리와 잠수성 오리로 나눌 수 있는데 먹이를 찾는 모습과 물위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면 둘의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수면성 오리인 흰뺨검둥오리·쇠오리·청둥오리·고방오리 등은 머리와 목을 이용해 먹이를 찾고 제자리에서 바로 날아오른다. 잠수성 오리에는 비오리·흰죽지 등이 있는데 잠수해 먹이를 찾고 물위를 달리면서 날아오른다. 탄천에는 수면성 오리가 많이 날아오는데 이는 탄천의 수심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올 겨울에는 탄천변을 걸으며 새를 눈여겨보자. 그리고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긴 목을 빼고 꽂지깃을 거만하게 올린 채 백조처럼 우아하게 떠있는 고방오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쇠오리의 여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여름 철새지만 텃새화된 백로와 왜가리의 먹이를 향한 조심스러운 발걸음과 날넙 부리의 움직임도 흥미로운 광경이다.

겨울 철새들은 이듬해 3월경이면 거의 떠나간다. 먼 곳에 가야만 철새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를 탐조(探鳥)하러 이번 겨울에는 탄천을 찾아보자.

자료제공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정리 | 윤종준 상임연구위원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생생 재테크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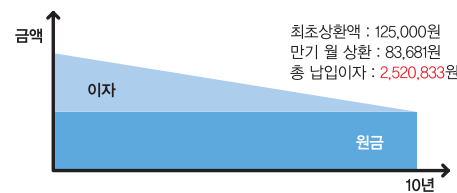
알아두면 유용한 대출 상식

대출이란 금융기관의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필요한 현금을 빌려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은 시중은행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의 하나다. 대출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 알아 보자.

흔히 대출상품을 선택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금리다. 금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출상환 방식에 따라 우리가 지불하는 총이자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아래의 그림은 1,000만 원을 5% 금리로 10년 동안 상환했을 경우 상환방식별로 총 납입이자의 차이와 원금과 이자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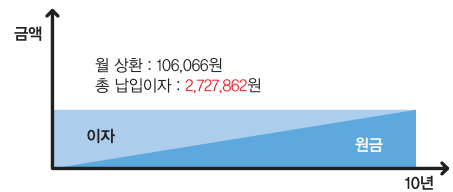
원금 균등 상환방식

대출을 약정해 만기까지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다. 최초 이자 부담이 커서 상환액이 크다가 이자가 갚아짐으로써 점차 상환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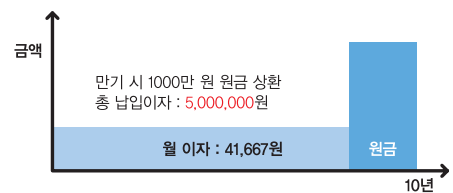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대출을 약정해 만기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원금이 적게 상환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의 비중이 높아지는 대출 방식이다.



만기일시 상환방식

대출을 약정해 만기까지 이자만 상환하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마이너스 대출

‘한도 대출’로 만기일시상환이며, 연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10% 정도에서 적용되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마이너스 대출은 총 한도를 정해 사용할 수 있고, 총 한도 내에서 내가 사용한 만큼만 이자를 내면 된다.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면서 일반 적금을 하는 사람을 종종 만나볼 수 있다. 적금을 넣을 돈이 있다면, 마이너스 대출을 빨리 갚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구조적으로 적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매월 그만큼의 이자를 더 지불하기 때문이다. (청약상품 예외)

만기일시상환을 기준으로 1%의 금리차이는 총 100만 원의 이자를 더 지불할 수 있지만, 상환방식에 따라서는 20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인다. 또한, 상환방식에 따라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정의 재무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금리, 상환방식, 가정형편을 고려해 똑똑하고 당당하게 대출상품을 구입하자.

※ 다음호에는 ‘13차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게재됩니다.

포도재무설계 서울지점 상담위원
남기일 moneyplan@pedafp.com



책 읽는 성남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이자 아이들의 책 놀이터
상대원1동 책이랑도서관

성남시에 문고로 등록돼 따뜻한 사람들과 지역자치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한 문화 사랑방이고 아이들에게 책 놀이터”라는 양희정(41·상대원동·사진) 선생은 “아이들의 안전한 공간으로 맞벌이 부부의 걱정을 덜어주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고 고민하며 실천하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말했다.

박정숙 선생과 양희정 선생을 비롯한 여덟 명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 책 읽어주기, 영화상영,

글쓰기 교실, 놀토 가족기행, 독서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딱딱한 공간이 아닌 자유로운 공간에서 책 읽기를 즐기고,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와 창의력, 공동체 의식과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자연스레 몸과 마음으로 스며들기를 바란다”는 양 선생은 아이들의 가슴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싶다고 한다.

현재 8천여 권의 도서를 소장한 ‘책이랑도서관’은 회원이 100여 명에 이르고 하루 평균 65명이 도서관을 이용한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09:30~18:00)까지며 도서 대출기간은 7일, 대출한 도는 1회에 3권에서 7권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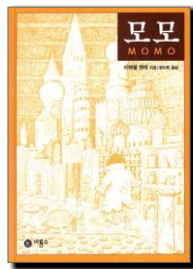
조민지 기자 dudldk@hanmail.net

추천 도서

모모

미하엘 엔데 지음
한미희 옮김
비룡출판사

순간순간을 즐기며 목표에 이르는 길과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일까? 모모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모모에게 친구는 희망이며 활력소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게 한 책이었다. - 양희정



▶▶ 소비자 inf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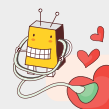
자신에게 맞는 치약 선택 중요

예로부터 오복의 하나로 치아를 꼽았다. 치아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9개 회사 15개 치약을 대상으로 상아질 마모도(Relative Dentin Abrasion)와 치아 침착물 제거력(Stained Pellicle Removal) 시험을 해보았다.

그 결과 제품에 따라 대조군 평균치(100) 대비 42.33±1.72~103.68±1.93으로 나타났다. 치아 상아질 마모도가 높다는 것은 치아 손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마모도가 낮다는 것은 치아 손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상아질 마모도가 높아 치경부 마모도가 심한 경우, 치근이 노출된 경우, 치아가 약한 노약자, 습관적으로 수평 잇솔질을 심하게 하는 사람 등은 마모도가 높은 치약이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전문가 조언에 따르면 비교적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가 적고 구강상태가 불량한 경우는 마모도가 높은 치약(130±20)이 좋지만, 치주질환이 있거나 과민성 치질이나 치경부 마모증이 있는 환자는 연마도가 약한(70±20) 치약이 좋으며, 일반인은 중간 정도의 연마력(100±20)을 가진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도 제품 포장에 ‘치태제거(안티프라그)’, ‘치석침착예방(형성억제)’이라고 표시된 치아 침착물 제거력 역시 제품마다 제각각이었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제대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건강 칼럼

척추관 협착증, 어르신 엉치 아플 때 의심해야



분당재생병원 정형외과 척추전문
내과임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르신들의 엉치나 다리가 더욱 아파지기 쉽다. 엉치가 아프고 허리가 구부러지며 걸음걸이가 불편해지면, 그 원인이 척추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디스크는 갑작스럽게 한쪽 다리가 저리고 아픈데 비해, 척추관 협착증은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고 대개 양쪽 다리가 아프며 노인에게서 주로 나타난다는 점이 다르다.

1. 척추관 협착증이란?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허리나 엉치, 다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주로 50대나 60대에 증상이 발생한다.

2. 증상

-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
- 엉치가 아프며, 다리가 저리고 당기며 뻣근하다.
- 엉치와 다리가 아파 걸어가다가 쉬어 간다.
- 수십 미터 이상 걸으면, 다리가 쭈어짜거나 터질듯이 아프며, 쫓고려앉아 쉬면 다시 걸을 수 있다.
- 걸을 때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다리가 덜 아프고, 허리를 펴면 더 아프다.

3. 진단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듣고 진찰하고 X-선검사를 하면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비교적 쉽게 내릴 수 있다. 증상이 심하거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은 경우, MRI검사를 시행해 병의 정도를 알아야 자세한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가끔, CT검사로 근전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4. 치료

근본적인 치료는 신경을 압박하는 구조물(돌출된

디스크, 커진 후관절 뼈, 두꺼워진 황색인대)을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많은 환자들은 비수술적 치료에 좋은 결과를 보인다.

비수술적 치료에는 약물요법(소염진통제·근육이완제·신경혈액순환 개선제), 물리치료, 신경주사 등이 있다. 6개월 정도 치료해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면서 불편한 거동으로 인해 골다공증이나 다른 합병증이 생기기 쉽고, 병이 심해질수록 더 큰 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술적 치료는 보행 시 버스 한 정거장을 걸어갈 때 한두 번 이상 쉬어 가게 되는 경우, 다리가 저리고 뻣근해 걷다가 앉아서 쉬는 경우, 발목이나 발바닥이 아프고 마비되는 경우, 약물이나 신경 주사에도 나아지지 않은 경우 등에 필요하다. 수술 방법은 다양하며, 협착증의 심한 정도와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적 신경 감압술, 광범위 감압술 및 유합술 등이 있다. 수술 2~3일 후 보행 가능하며 1주 후면 퇴원 가능하다.

신종인플루엔자 이렇게 대처하세요



환자 주의사항

- 증상 발현 후 7일간은 학교나 직장에 가지 말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한다.
- 환자는 외출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손은 비누로 자주 씻는다.
- 당뇨·심장병·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항바이러스제 복용 여부, 다른 치료조치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가족 구성원 주의사항

-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손을 비누로 깨끗이 자주 씻으며, 개인별 수건을 사용한다.
- 공동 이용 공간은 자주 환기시키고, 물품등은 소독제 등으로 깨끗이 닦는다.
- 일회용 마스크는 재활용을 금하고, 천 마스크는 세척해 사용한다.
- 환자가 사용한 1회용품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환자가 이용한 물건을 만진 후에는 즉시 손을 씻는다.

가점병원 및 거점약국 안내

가점병원

- 수정구 : 정병원(757-8900), 연세우리병원(735-7500)
- 중원구 : 성남중앙병원(799-5300)
- 분당구 : 분당서울대병원(1588-3369), 분당차병원(780-5000), 분당재생병원(779-0114), 국군수도병원(725-6124)

거점약국

- 수정구 : 연세약국(☎757-9996), 신홍종로약국(☎744-2992)
- 중원구 : 리드팜21세기약국(☎758-1940), 새중앙약국(☎745-0355)
- 분당구 : 비엠디약국(☎707-1959), 세계로약국(☎719-0460), 분당이화약국(☎710-9630)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예약안내

- 만 3세 이상~미취학아동 : 접종시작 시기(12.7) 사전예약 개시(11.18)
- 생후 6~36개월 미만 영유아 : 접종시작 시기(12.7) 사전예약 개시(11.23)
- 임신부 : 접종시작 시기(12.21) 사전예약 개시(11.25)
-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 접종시작 시기(12.16) 사전예약 개시(12.2)
- 만성질환자 : 접종시작 시기(2010.1.7) 사전예약 개시(2009.12.16)
- 전화·방문 예약인(http://nip.cdc.go.kr) 예약 가능

어느 희망근로자의 애환

양재민 | 중원구 상대원1동

성남시에 소재한 등산로 개·보수와 고목·쓰레기 치우기 등의 소임을 받고 6월부터 시작한 희망근로 사업이 끝나가는 시점, 그동안 체험했던 잔잔한 애환들이 하나둘 생각난다.

우리 희망근로 대원들의 첫 만남, 좌중을 아무리 둘러봐도 70세가 넘는 내가 최고령 자임을 직감했다. 내 탄에 건강하고 멋지게 늙어간다는 자부심은 어느새 초라해졌다. 순간 나는 다짐했다. 젊은 그들로부터 거추장스럽다거나 끼워 넣기 했다는 식의 애증(?) 어린 눈초리를 받는 것은 결코 거부해야겠다고. 힘에 겨운 작업과정이나 목적지까지 가는 급한 행군에도 난 언제나 1, 2등을 빼놓지 않았다. 그 때문에 우리 팀의 근로 분위기는 자연스런 선의의 경쟁관계가 돼 그 어느 팀보다도 성과가 좋았다. 거북하게 들렸던 ‘어르신’이나 ‘아저씨’의 호칭은 언제부턴가 ‘큰 형’ ‘큰 오빠’로 불렸고, 더욱 출선 수범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즐거운 긴장의 연속이었다.

돌아켜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 극히일부의 비아냥거림은 우리의 심혼을 찢어 놓는 아픔을 던져주기도 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가 따랐다. 산 정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진솔한 호의는 오래도록 내 가슴에 남을 것이다. 목마름을 적서준 시원한 음료수며 과일 등을 한사코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의 이쁨다움에 그저 울컥함으로만 보답했다. 때로는 아찔한 순간과 슬픈 일도 있었다. 청계산 정상에서 기절한 여성대원을 119 요원들이 숨 가쁘게 후송한 사건, 아버지를 잃은 비통함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출근해야만 하는 젊은이의 현실 등등. 가려낸 너석들을 그쳐 살포시 안아 줄 수밖에 없는 나의 빈곤한 위로가 한없이 부끄러웠다.

면면히 떠오르는 우리 동지들의 자화상들! 크고 작은 잡음들을 즐거움으로 정리하는 미스터 황, 시대적 흐름을 분별해 정연한 논리로 쉽게 설명해준 똑똑이 정원 씨, 2% 부족한듯한 생활관념으로 자지러지는 분위기를 연출한 광재, 대원들의 우정에 찬 성화에 술을 끊은 옥이와 성대, 묵묵히 자기 일에 성실한 언락이, 노장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소외됨을 가로막은 젊은이들이 참으로 고마웠다. 이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우리 팀 관리자의 덕이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리처드 탈러 교수의 <넛지(nudge)>를 탐독했음직한 최길방 팀장과 조문현 씨의 부드럽고 은근한 지도력에 감탄한다.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같이 어울리고 싶은 간절함은 이 늙은이의 지나친 욕심일까! 이름 없는 당신과 내가 우리를 만든다는 조병화 님의 시 한편이 떠오른다.

나하나 꽃 피어

나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은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하늘하늘 갈대바람 송호성 | 분당구 구미동

엄마야 누나야 천변 살자 / 우리 집 앞뜰에는 갈대의 숲
탄천은 아마 계절의 시계인가 보다.

구름에 달 가듯이

살면서 보면서
있어 버려던 세월들
구름 속에
잠주었다 지나가듯
다시 돌아와

너
살면서 보면서
그렇게
구름에 달 가듯이
바라보며
남은 세월들

지난날의 너와 나의
풍경을 기억하며
살면서 보면서
임 맞추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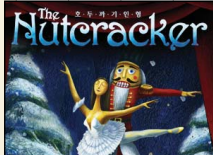
파란하늘 바라보며
그렇게
웃으며
기뻐하며

구름에 달 가듯이
살면서 보면서
숨 쉬우리

이현선 | 수정구 시흥동
일성리산산업(주) 대표이사
백두산문인협회 회원, 시인, 수필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랑아)
(숨은 꽃) (바람에 꽃씨를 뿌리며)
등의 시집 출간

채택된 작품에는 약간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주소, 연락처 기재 바람)
보내실 곳 : <비전성남> 편집실 729-2075~6 이메일 : snnews@korea.kr

| 2009년 12월 문화 행사 캘린더 |

2009년 11월					2009년 12월																																		
27 금	28 토	29 일	30 월	1 화	2 수	3 목	4 금	5 토	6 일	7 월	8 화	9 수	10 목	11 금	12 토	13 일	14 월	15 화	16 수	17 목	18 금	19 토	20 일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26 토	27 일	28 월	29 화	30 수	31 목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 일시 : 12월 3일(목) 오후 8시 성남시민회관 • 출연 : 소프라노: 유은지, 테너 류정림, 바리톤 김승유 • 티켓 : 전석 1만원 • 성남시립교향악단 705-8177					 명품 악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 일시 : 12월 5일(토) 오후 4시,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출연 : 최주봉, 김혜영, 이대호, 김성태, 이한수 등 • 티켓 :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A석 1만5천원 • 예매문의 : 783-8000 www.snart.or.kr • 성남문화재단 공연기획부 783-8048					 The Nutcracker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오페라 발레극장 호두까기 인형 • 일시 : 12월 22~26일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티켓 : VIP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B석 2만원					 성남시향 제70회 정기연주회 • 일시 : 12월 11일(금) 오후 8시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출연 : 성악자황자 김봉, 바이올리니스트 정남일 • 티켓 : 전석 1만원 • 성남시립교향악단 705-8177					 명품 송년콘서트, 장시익 소프라노 꽃구경 • 일시 : 12월 12일(토) 오후 5시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티켓 :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 예매 : 티켓링크 1588-7890 인터파크 1544-1555 • 문의 : (주)서울예술기획 02-548-4480 www.seoularts.com					 송년 음악회 금년새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송년음악회 • 일시 : 12월 26일(토) 오후 5시 • 장소 : 성남시민회관 대극장 • 출연 : 금년새해설 및 지휘,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권구림(바이올린) • 티켓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 예매 : 인터파크 1544-7117 • 성남시민회관 729-4895~6					 성남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 일시 : 12월 16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성남시립국악단 729-4810					 마티네 콘서트 • 일시 : 12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티켓 : 전석 2만원				

노인보건센터 찾아가는 무료 건강강좌 - 내용 : 당뇨·고혈압·뇌졸중, 근골격계 질환 교육, 치매·신종플루 바로알기 및 예방 교육 - 방문교육 일시 : 10.20~12월 말경 - 전화상담 및 접수 : 10.7~12.4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739-3062~3	민생안정지원서비스 포털 '희망길잡이넷' 주소 : www.hope4u.go.kr 내용 : 일자리지원, 실직자지원, 저소득층 생계지원, 자영업자생업지원, 교육·보육지원, 주거지원 등 특징 : 신호등 기능 부여로 서비스 별로 진행정보 알람, 온라인 상담실 개설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정보화담당관실 02-2023-7188	성남시 공고 제291호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명예기자 모집 성남시는 지역 곳곳의 생생한 소식을 취재해 시민들에게 전해주는 비전성남명예기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0명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성남시 중원구·분당구 거주자로 시정에 관심 있고 취재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 신문취재, 편집 등 관련 분야 경력자 우대 - 활동내용 : 월 1회 명예기자 간담회 참석, 지역 내 인물·기관·미담사례 등 지역소식 취재 및 기사 작성, 기타관련 행사 등 -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부, 자기소개서 1부, 기명기사 사본(있는 분에 한함) - 접수방법 : 2009.12.10(목)까지 이메일 접수 (snnews@korea.kr), 우편 접수 (우 462-100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홍보담당관실 <비전성남>) - 선발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는 2009. 12월 중 개별통지) - 급여는 없으며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취재기사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홍보담당관실(<비전성남> 편집실 729-2075~6)로 문의 바람.
수노을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모집 - 대상 : 성남시 거주 60세 이상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 시간 : 월~금요일 09:00~17:00 수노을노인주간보호센터 731-3393~4	민·형사에 관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상담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 대상 : 사전예약 하신 분에 한함 - 장소 : 성남가정법률상담소 내 성남가정법률상담소 707-6661~2	
이주여성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대상 : 시 거주 결혼이주여성이면 누구나 가능 - 한글교실 : 매주 월·화 16:00~18:00 - 컴퓨터교실 : 매주 수·목 16:00~18:00 - 요리교실 : 격주 금요일 15:00~17:00 - 이용료 : 무료 수정노인종합복지관 731-3393~4	가정폭력 및 여성문제 상담 내용 : 여성폭력 및 여성문제,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의료 및 법률소송 지원, 피해자 시설 무료 입소지원 등 성남가정폭력상담센터 751-6677 성남성폭력상담소 751-1120	
주민등록증 우편 배송 서비스 실시 - 시행시기 : 10.1(목)부터 전국 시행 -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우편 수령'란에 체크하고 주민등록증을 받을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우편요금 3천 원과 함께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배달횟수 : 본인 및 주소지 내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실시 성남분당우체국 지원과 725-8071	미혼도 시설 무료 입소·분만 상담 - 시간 : 24시간 상담(비밀 절대보장) - 무료상담전화 080-747-5453 동방사회복지회 성남상담소 747-5453~5036	
범죄신고는 경찰 112 - 범죄로 인해 인명 재산을 위협받는 긴급상황, 범죄 수사·경미한 교통사고 등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 -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는 하위·장난·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는 자제 바람. - 긴급범죄 외 경찰관련 민원 : 1566-0112 - 타기관 민원 : 110(정부민원안내 종합콜센터) 분당경찰서 생활안전과 786-5146	경기여성 e-러닝센터 12월 온라인 교육생 모집 - 신청기간 : 11.20~11.30 - 교육기간 : 12.1~12.31 -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5세 이상 남/여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ggw.or.kr) 접속 후 해당과목 신청 및 온라인 교육 수강 - 교육과정 : IT·경영·여성특화분야 등 총 98개 과목 - 수강료 : 무료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899-9119	
법치신고는 경찰 112 - 범죄로 인해 인명 재산을 위협받는 긴급상황, 범죄 수사·경미한 교통사고 등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 -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는 하위·장난·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는 자제 바람. - 긴급범죄 외 경찰관련 민원 : 1566-0112 - 타기관 민원 : 110(정부민원안내 종합콜센터) 분당경찰서 생활안전과 786-5146	길 찾기 에피소드 공모전 - 기간 : 11.10~12.9 - 내용 : 길(위치) 찾기 경험과 관련된 내용 - 문의 :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 토지정보과 새주소사업팀 729-3373	

2009년 12월 시민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안내

기 관 명	구 분	자 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일/접수처
수정구청	한글 2005	성남시민	11.30~12.11	09:00~10:30	22	11.16(월)~11.30(월) 인터넷 접수 www.suseong-gu.or.kr www.jungwon-gu.or.kr 전산통신(4층) ☎729-5075
	스위시맥스 2			11:00~12:30	22	
	파워포인트 2003			13:00~14:30	22	
중원구청	한글	성남시민	12.1~12.24	월~금 09:30~12:00	30	11.24(월)~11.26(목) 전석소 방문, 홈페이지 접수 www.jungwon-gu.or.kr ☎729-6073
	엑셀			월~금 13:00~15:30	30	
	파워포인트			월, 화, 수, 금 18:30~21:00	30	
수정도서관	포토샵 맛보기	성남시민	12.1~12.24	화~금 09:30~11:00	30	11.24(화)~11.26(목) 전석소 방문, 홈페이지 접수 www.jungwon-gu.or.kr ☎743-9600(214)
	인터넷 200%활용			화~금 11:30~13:00	30	
	클래시			화~금 14:00~15:30	30	
	프리젠테이션 달인되기			토 10:00~12:30	20	

기 관 명	구 분	자 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일/접수처
중원도서관	포토샵(심화)	성남시민	12.1~12.24	09:30~11:00	30	11.26(목)~11.28(토) 인터넷 전석소 접수 http://www.snlib.net ☎732-3916
	엑세스			11:30~13:00	30	
	뉴 실버세대를 위한 한글 2004			14:00~15:30	30	
	엑셀과 파워포인트			16:00~17:30	30	
(사)성남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직장인을 위한 엑셀(심화)	성남시 직장인	12.5~12.26	10:00~13:00	30	수시모집 ☎732-6884
	PC활용기초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3개월	월, 수, 금 09:30~11:00	17	
	인터넷		3개월	월, 수, 금 11:00~12:30	17	
	워드자격증		3개월	월, 수, 금 09:30~11:00	20	
	엑셀자격증		3개월	월, 수, 금 11:00~12:30	20	
	멀티미디어활용		3개월	화, 목 09:30~11:00	20	
	파워포인트		3개월	화, 목 11:00~12:30	20	

※ 자세한 교육일정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정보화교육)에서 확인 가능